

사진수집가 강해원씨, 美서 수집한 희귀사진 본보 독점 공개 ㉠ 광주 상무대 개설 모습

전란 속 이승만대통령 방문 장병 격려 생생



좌수 사열하는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상무대의 포로수용소에서 좌수들을 모아놓고 점검하고 있다.



VIP 맞이 분주한 군인들 당시 상무대 입구의 모습으로 명명식을 준비하는 군인들이 VIP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육군교육총감부 시찰 이승만 대통령이 임선하(왼쪽에서 두번째) 장군과 함께 상무대에 있는 육군교육총감부를 시찰하고 있다.



상무대 전경 항공촬영 지난 1952년 1월6일 광주 상무대의 개설일날 우리나라 육군이 항공 촬영한 모습.



상무대 표지석 상무대 입구에 세워져 있던 표지석. 이승만 대통령의 친필로 알려져 있다.



상무대 명명식 기념 연설 이승만 대통령이 상무대 명명식 연설을 하고 있다.

“박물관·기관 등에 기증 묻히는 것보다 광주일보 지면 통해 많은 사람 봤으면”

‘상무대 명명 기념사진첩’ 국내 첫 공개한 강해원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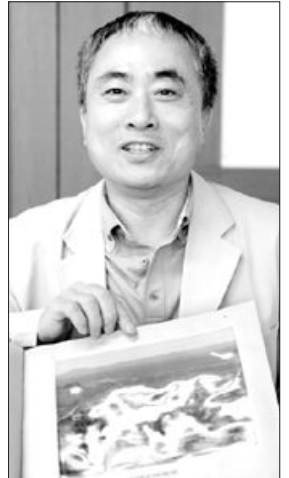
“6·25 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이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광주 상무대의 사진기록을 입수했습니다. 아마 군부대에도 이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서울이나 기타 기관에 보내 썩히는 것보다 광주의 대표 일간지인 광주일보에 공개해 많은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해원(54·인천시 부평구) 한국 통신사 수집·연구가는 최근 광주일보를 방문해 지난 1952년 1월6일 광주 상무대의 개설 및 명명식 등이 포함된 사진첩을 공개했다. 한자로 ‘상무대 명명기념 사진첩’이라고 적힌 이 자료는 당시 육군교육총감부에서 제작한 것이다.

이해 당시 육군교육총감부 임선하 준장이 미국 8군 사령관인 제임스 밴 플리트(James Award Van Fleet) 장군에게 선물한 것으로 우리나라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씨는 이 자료를 미국의 한 수집가에게서 구입했다.

이 사진첩에는 당시 상무대 전경과 이승만 대통령의 상무대 명명 연설 장면, 이 대통령의 상무대 포로수용소 방문 시찰 모습, 밴 플리트 등 미군 지휘관의 기념촬영 모습 등 44장이 담겨있다.

강씨는 “이 자료를 입수한 후 육군 박물관에 문의해보니 관련 자료가 그곳에서도 전혀 없었다”며 “상무대도 당시 자료로는 조감도만 있을 뿐 현장 자료가 전혀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추후 상무대에 사진을 제공



해 역사실에서 전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씨는 전북 김제 출신으로 40여년 전부터 한국 통신사와 관련돼 자료들을 수집·연구하고 있다. 상무대 관련 자료 뿐 아니라

수천여점의 희귀자료를 갖고 있는 강씨는 상무대 뿐 아니라 이후 전시회를 열어 대중에게 공개할 계획도 갖고 있다.

“박물관 등에 기증하게 되면 창고 속에서 묻힐수도 있는 만큼 광주일보를 통해 보여주는 게 가장 좋겠다 싶어 공개했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모으게 되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강씨는 상무대 관련 자료 뿐 아니라 1950년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사진들도 공개했다. 이는 22일 광주일보에 실릴 계획이다.

강씨는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아직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있는 휴전 국가다”며 “인천상륙작전의 자료도 공개하는 만큼 이를 통해 역사의식을 더욱 갖고 공부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밴 플리트 사령관과 함께 밴 플리트 사령관인 제임스 밴 플리트(왼쪽에서 세번째)가 항공기를 이용해 상무대에 도착한 후 이승만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미국 8군 사령관인 제임스 밴 플리트(왼쪽에서 세번째)가 항공기를 이용해 상무대에 도착한 후 이승만



사열받는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 밴 플리트 장군이 사열하고 있는 병사들 앞에서 경례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밴 플리트 장군이 사열하고 있는 병사들 앞에서 경례하고 있다.